

# 함안 낙화놀이 수천 송이 불꽃이 연못을 물들인다

## 5월 12일 밤 무진정에서 열려

매해 늦봄 석가탄신일이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불꽃 축제가 경남 함안에서 열린다. 함안의 봄밤을 수놓는 불꽃은 우리가 흔히 접하던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 고유의 불꽃놀이가 궁금하다면 사월 초파일(5월 12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무진정에서 열리는 '함안 낙화놀이'를 찾아가 보자.

함안 낙화놀이는 숲과 한지를 꼬아 만든 수천 개의 낙화봉을 공중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타들어 가는 송가루가 빛을 발하며 연못 위에 떨어지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함안 낙화놀이는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오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정기 말살 정책에 따라 중단된 것을 1985년 다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는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됐다. 함안 낙화놀이는 매년 석가탄신일에 함안군이 주최하고 함안읍 성낙화놀이보존위원회가 주관한다.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식전 행사로 흥을 돋우고, 함안군수가 헌관으로 참여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개막식을 한다.

사위가 어둑해지는 오후 7시 30분부터 20여분간 낙화놀이의 점화가 이어진다. 낙화는 90여분간 조용히 때론 우수수 떨어지고, 바람에 줄이 일렁이면 불꽃 수만개가 연못을 가득 메우기도 한다.

낙화가 끝날 때까지 민요, 북, 고전무용, 태평무, 초청 가수 무대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더해진다. 방문객은 불꽃이 흩날리는 장관을 감상하며 낭만으로 가득한 봄밤을 즐길 수 있다.

낙화놀이의 인기는 옛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형목 함안군수가 1889년부터 1893년까지 근무하며 기록한 함안총쇄록에는 당시 함안군 전체에서 낙화놀이가 행해지고 산 위에서 구경할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한다.

낙화놀이가 진행되는 무진정은 1976년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58호로 지정된 곳으로 고요한 연못과 정갈한 정원을 거닐다 보면 마음마저 깨끗해지는 곳이다. 조선 시대 문신 무진(無盡) 조삼(趙參)이 기거한 곳으로, 가야읍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져 있다. 1567년(명종 22년) 후손들이 조삼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정자를 건립하고 그의 호를 따서 무진정이라 했다. 편액과 정기(亭記)의 글씨는 주세붕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1929년 세웠다. 기둥 위에 아무런 장식이나 조각 없이 소박하게 꾸민 팔작지붕의 건물로 조선 초기 정자 양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



천혜의 자연경관 입곡군립공원

# 아라 힐링카피 (무빙보트)



- ✓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즐기는 고품격 수상레저
- ✓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 ✓ 자연친화적인 수상레저 보급
- ✓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운영

